

상록탑

개헌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청와대는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20일에는 개헌 헌법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 관련 내용이 공개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동건
편집부국장

“
야당은 각성하고
국민 위한 개헌에 집중해야

개헌안 발의를 코앞에 둔 시점이지만 국회의 여야 협상 테이블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야당(해당 글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의미함)은 끝내 행정부(정부)가 국회 총리 추천제를 개헌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잔뜩 골이 났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한 채 대통령 중임을 허용하고, 국회의 정부 견제 수단을 남겨놓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일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 아니다. 야당의 실질적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6월 선거에서 자신들이 마주하게 될 불리한 선거 국면이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그대로 관철될 것이고, 통과되지 않더라도 야당 책임론이 부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이러한 속내 때문인지 야당은 정부에 비난을 퍼붓고 있다. 야당에 맞춰 개헌안을 수정하든지, 6월 선거에서 야당이 피해보지 않도록 개헌 일정을 조정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에게 개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덧붙여진 일침도 잊지 않는다. 이토록이나 비협조적인 야당의 태도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개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야당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 국민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대부분의 국민이 대통령 개헌안이 대한민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공통적 열망을 외면하고 있다. 비

록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견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정당성을 지닌다. 지금 야당의 견제에는 국민의 지지가 없다.

더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년 전 대선기간 때만 해도 개헌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는 점이다. 대선에 나온 모든 후보, 심지어 홍준표 후보마저 대선-개헌 투표 병행은 무리라고 밝혔음에도,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강력하게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그랬던 그들이 개헌안의 국회통과조차 불분명한 지금 상황을 병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했을 것이다. 어차피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길 가능성은 희박했고, 그럴 바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국회로 가져오는 것이 그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현 야당의 행보는 참으로도 일관적이다. 일관적으로 그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국민의 의견에는 관심이 없다. 단 한 가지 다행인 사실이라면, 더 이상 국민들이 기만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개헌안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까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 개헌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국민들은 ‘이게 다 야당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학생 칼럼

검은 눈으로 세상을 본다

“사람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왜 검은 부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



서현정
커미-15

“그것은 세상을 어두운 면에서 보는 편이 좋기 때문입니다. 밝은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대담으로 이뤄진 「탈무드」의 한 구절이다.

인간의 몸은 하나의 우주와 같다고 한다. 세상의 이치가 온몸 구석구석에 담긴 셈이다. 눈도 그중 하나다. 위의 대답은 세상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비판적인 시각으로 나 자신을 직면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모든 것에 회의적인 낮은 자존감도 경계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자만심이다. 넘치는 자만감은 독이 된다.

이화는 내게 뚜렷한 흑안(黑眼)을 선물했다. 확장시절의 나는 글 쓰는 것에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 교내, 교외 가릴 것 없이 열리는 모든 글쓰기 대회에 참가했고 수상은 자연히 따라왔다. 또래에 비해 독서량이 많다 자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화여대에 입학하고서 나의 자부심, 아니 자만심은 와장창 깨졌다. 처음 들었던 미디어 글쓰기 수업, 나의 첫

“
이화의 가르침이
자만을 극복케 했다

기사는 빨간 줄투성이였다. 비문도 많았고, 현학적 수사의 나열들로 논지가 파문해버렸다. 그 이후로 나는 모든 학기에 작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을 꼭 넣었다. 나의 자만에 대한 반성의 실천이었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우들도 나에게 객관화의 시각을 던져줬다.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 국문과의 비평 수업, 작품에 관해 조를 지어 학우들과 얼굴을 맞대고 비평을 나눴다. 글로 쓴 적 없음에도 유창하게 자신의 생각을 언어에 온전히 담아내는 학우들을 보며 그렇지 못한 나의 부족함을 절감했다.

이화는 내게 지성인으로서 반성하고 자정하는 태도를 가르쳐줬다. 여성학적 관점에서 교수님들도 자신을 객관화하고 성찰함에 주저함이 없었다. 이처럼 이화는 배움을 업(業)삼는 지성인이라면 응당 자신을 성찰하고 언제든 고쳐나아가 함을 직접 보고 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이었다.

이화에서 배운 스스로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나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했다. 나의 부족함을 알아차리고,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 더욱 견고한 나로 성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시각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노자(老子)는 검정을 가지고 현묘함을 말했다. 경지가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미묘하단 뜻이다. 이 세상의 온갖 색을 섞으면 검은색이 나온다. 역설적이게도 검은색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다채로운 색인 것이다. 검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단지 세상을 어둠에 보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어두움이 결국 모든 색을 담고 있음을, 나 스스로를 객관화시킴으로써 결국 세상의 온갖 시각을 품은 사람이 되라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나는 오늘도, 검은 눈을 빛내며 세상을 보고자 한다.

다. 그동안 내 마음에는 여유가 없었다. ‘나’라는 한 사람으로 꼭 채워놓고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내면에 심어놓은 나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벽쳤다. 타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할 엄두조차 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나에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나의 성격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내게 차지하는 타인의 경중을 알지 못해 갈등이 생기는 순간 노력 없이 가볍게 놓아버린 아쉬운 인연들이 많았고, 이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많이 사랑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외로워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 지쳐있으면서도 외로운 모순된 감정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당신은 당신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나요?”

이다원(한국음악·16)

사설

2차 가해 예방에 주의 기울여야

한 주에 미투(#MeToo) 폭로가 두 건이나 연달아 발생했다. 19일 조형예술대학 내부 폭로에 이어 22일 음악대학에서도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공문화됐고 이후 정문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번 사건들은 지금까지의 미투 폭로와는 달리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정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동일인에게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이런 연대의 움직임은 본 사안에 사회 구조적 문제가 숨어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폭로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총학생회나 소수자인권위원회를 연대해 학교 측에 제대로 된 처벌을 요구하고, 다른 학생들의 지지를 얻어나가는 과정은 외부의 시선을 끌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나갈지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점은 단연 2차 피해 방지다. 특히 교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학 내에서 교수와 제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폭로한 학생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두 번의 미투 기자회견 발언에서도 엿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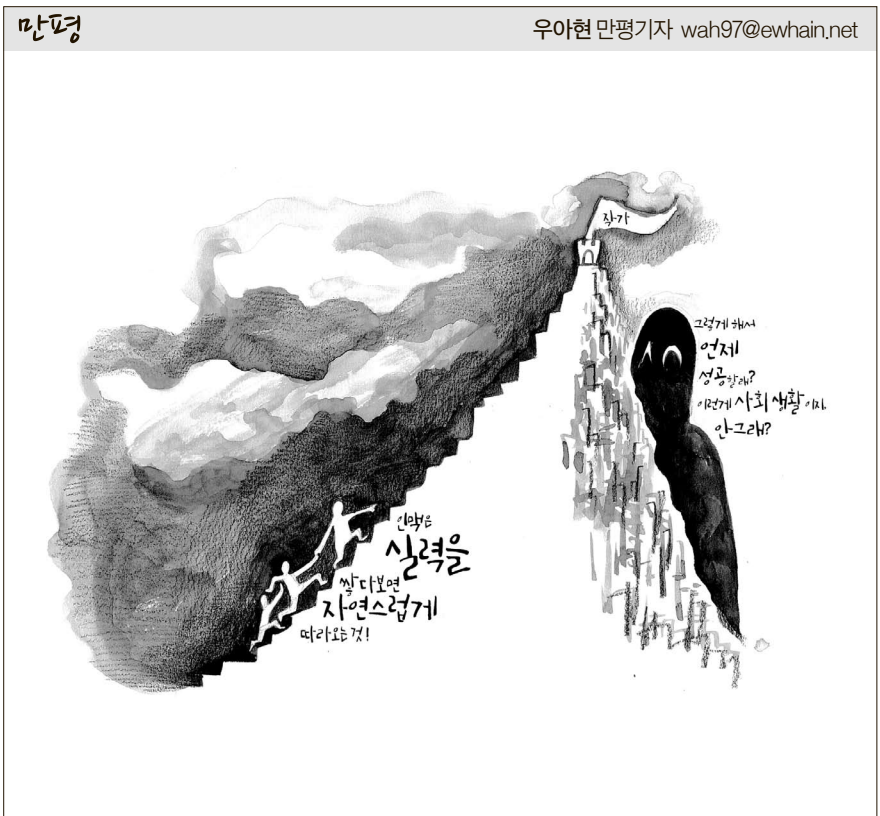
있듯 학생들은 해당 교수가 자신의 커리어에 미칠 영향, 성적이나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현재 두 건의 미투 폭로는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규정은 2차 가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을 외부로 누설하는 것, 관계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것,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것, 사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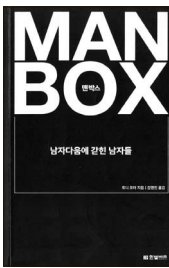
규정에는 2차 가해 예방 항목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성희롱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피신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두루뭉술하게 2차 가해를 방지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조항은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을뿐더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이다. 각 위원의 자율적 해석을 낼 수 있는 현 조항보다는 누가 위원으로 있어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명확한 규정 제정을 통해 2차 가해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금주의 책



맨박스 : 남자다움에 갇힌 남자들 - 토니 포터 지음, 서울: 한빛비즈, 2016. 이 책의 제목인 맨박스는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들에게 강요되는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온다’, ‘남자는 남자다워야지’와 같은 고정관념을 상자에 비유한 말입니다.

저자 토니 포터는 여성을 향한 폭력과 차별 문제 근절을 위해 남성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남성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도 남성들에게 남자다움이라는 강박을 주는 동시에 여성에 대한 구속과 억압을 불러일으키는 맨박스를 하루 빨리 깨부수야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라는 성차별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개인이 갖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받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며 이화인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중앙도서관-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을 인기도서 / 3층 일반자료실 305.31P835b한]

0221~0322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미생 :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2-2013	
2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rd ed./	Dewey, Melvil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Inc.	2011	
3	신과 함께 : 신화편	주호민	애니박스	2012	
4	Macroeconomics 6th ed	Williamson, Stephen D.	Pearson	2018	
5	동양철학 스케치	김선희	폴빛	2009	
6	신과 함께 : 이승편 : 주호민 신화 개정판	주호민	애니박스	2017	
7	太白山脈 : 趙廷來 大河小說 제3판	조정래	해냄	2001	
8	Behavior management : positive applications for teachers 7th ed	Zirpoli, Thomas J.	Pearson	2016	
9	은하영웅전설	전종방수	이티카 : 디앤씨미디어	2011	
10	신과 함께 : 저승편 : 주호민 신화 개정판	주호민	애니박스	2017	